



“사회개혁 원동력은 봉사정신”

“한손엔 과학과 기술 다른손엔 지혜 더 평화적인 지구공동체 건설해야죠”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정화해야 하며 우리가 필요한 정화의 과정은 사회에서 노동, 즉 사회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1958년부터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을 전개해 스리랑카 사회개혁을 이룩한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봉사’가 바로 사회개혁의 원동력이며 ‘자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보살행’이라고 주장했다. ‘사르보다야’(Sarvodaya)는 ‘모두의 자각’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슈라마다나’(Shramadana)란 ‘한 사람의 생각과 노력을 공유’한다는 의미. 아리아라트네 박사의 사르보다야 운동은 불교전통과 경전을 단지 영적인 가르침으로만 해석한 한계에서 벗어나 영적·도덕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많은 영역으로 확산시켜 20세기 불교사회개혁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 스리랑카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따르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했고

다야 슈라마다나 운동은 처음 10년간 오로지 ‘농촌’ 봉사를 주요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경 부터는 이 운동을 위한 개발교육센터(meth

약 력

- 1931 스리랑카 남부 우나와트나에서 출생
- 1956 스리랑카 콜롬보 나란다 카레지(불교종립학교) 교사
- 1965 스리랑카 간티미에서 열린 교원조합에서 사르보다야운동 소개
- 1969 ‘리온 막사이사이싱’ 수상
- 1982 벤지움 왕실재단의 ‘국제개발상’ 수상
- 1990 코펜하겐의 ‘오거스트 포레트 기념상’ 수상, 인도 자르나란트 버저지 재단의 ‘국제상’ 수상
- 1996 ‘간디평화상’ 수상



58년 ‘모두 깨닫기운동’ 전개...80년 이후 국제적 관심 인종갈등 해소위해 평화행진 주도 해결책 협상

절대권력층과 도시빈민·농민 등의 소외층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 학생들은 도시빈민과 농민의 현실에 대해 대부분이 무지의 상태에서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환원되고 있었다. 당시 스리랑카의 불교고등학교인 나란다 칼레지 이 재직해 있던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며 ‘영국의 식민 지배로 붕괴된 불교윤리의 회복이야말로 스리랑카의 재건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먼저 학생과 교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학생과 교원들을 가장 낙후된 농촌으로 휴가를 보내 농촌개발을 고민해보라는 과제를 부여한 ‘슈라마다나 집회’(Shramadana Camp). 아리아라트네 박사가 나란다의 학생과 교원들에게 처음으로 실시했던 의식개혁사업은 장차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의 초석을 이루었다. 한편 ‘슈라마다나 집회’는 학생과 교원들의 의식개혁 뿐만 아니라 농민들 사이에서 농촌사회를 자신의 손으로 개선하려는 동기도 유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리아라트네 박사가 전개한 사르보

다야 슈라마다나 운동은 처음 10년간 오로지 ‘농촌’ 봉사를 주요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경 부터는 이 운동을 위한 개발교육센터(meth

medana), 운동보급센터, 사르보다야 전국본부, 사르보다야 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사르보다야 운동은 스리랑카의 대다수 소외 계층이 참여한 운동이다. 또 사르보다야 운동은 1980년대에 이르러 네덜란드(NOVIB) 등을 비롯해 20개 유럽단체로부터 재정·기술 등을 지원받기 시작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르러 사르보다야 운동이 위협받게 되었다. 스리랑카는 ‘신하리’와 ‘타밀’이란 두 인종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 따라서 스리랑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하리와 소수민족인 타밀 간의 정치·경제·종교적 갈등이 빈번했다. 사르보다야 운동은 초기부터 신하리·타밀지역 등을 분할하지 않고 스리랑카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스리랑카 사회의 다문화적 특성에 따라 ‘전통적 가치’를 존중했다. 또 사르보다야 운동의 사상적 배경인 ‘불교윤리’ 역시 신하리와 타밀을 분리하는 관념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힌두교인 타밀인이 사르보다야의 지도자로 성장했고 타밀의 젊은이를 위해

슈라마다나 집회와 여러 종류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직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첨예화된 스리랑카의 인종갈등으로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결국 평화중재인의 역할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1983년 7월 반란이 발발한 이후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리랑카의 다수의 인종이 참가하는 평화회의와 평화행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또 ‘스리랑카의 영적·정신적·사회적·지적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라는 ‘국가평화와 조화를 위한 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1990년에 이르러 캔디에서 스리랑카까지의 평화행진을 성공시킨 것을 비롯해 크고 작은 평화행진을 조직해 나아갔다.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평화행진에 참여자들에게 ‘부처님이 인간의 평화를 위한 45년간 행진을 행하셨다’며 ‘평화행진’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드디어 1994년에 이르러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타밀단체(LTTE)의 지도자를 만나 스리랑카의 인종갈등에 대한 극적인 협상을 이루었다.

1994년 아리아라트네 박사가 국제연합에 제출한 ‘인간개발보고서’에는 사

르보다야 운동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서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개발운동은 인간을 개발의 중심에 놓고 경제적 성장은 목표가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의존하는 자연적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가 바라는 개발운동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해 사르보다야 운동이 불교의 ‘자비’와 환경보호론 등과 깊은 사상적 교류가 있음을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사르보다야 운동을 스리랑카 개혁운동에서 세계 개혁운동으로 확대했다.

현재 스리랑카 2만여 마을중 절반이 넘고 1만1천여 마을에서 스님과 교사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1992년 ‘니와노 평화상’ 수상한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수상소감에서 “이제 한 손의 과학과 기술, 다른 손의 영적 지혜가 더 숭고하고 더 공평하고 더 평화적인 지구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인 차원에서 통합되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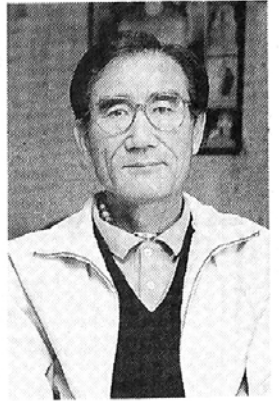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1974년 경주 토함산의 석굴암 부처님을 유리벽에 갇혀 버렸다. 관광객을 비롯한 인재(人災)로부터의 보호가 그 이유였다. 그해 나는 일본 바이어 몇 사람을 데리고 석굴암으로 갔었다. 당시 목각불상을 일본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일과 관련해 나를 찾아온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석굴암부처님을 자랑하고 싶었다. 그런데 유리벽에 갇힌 부처님을 보여드리는데 그쳐야 했다. 나는 매우 속이 상했다.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는 바이어들에게 석굴암 부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속상한 것은 아니었다. 유리벽으로 인해 부처님의 체취와 오늘의 중생이 단절의 상봉을 해야 하는 것이 속상했다.

그 유리벽은 부처님을 보호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로인해 석굴암 부처님은 역사 속으로 불현듯 떠나버렸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다. ‘유리벽 속의 부처님을 불러내자. 역사 밖으로, 오늘의 우리 곁으

석우일 <신라역사과학관장>



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석굴암의 재료 공급처로 알려진 압록에서 화강암을 채취해 가루를 내고 여기에 남산의 수정옥석과 에폭시를 배합해 석굴암과 근사한 질감의 석분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흙으로 2백86개의 부품을 압수 두가지씩 조각해 석고로 뜨고 이를 이용해 실리코너로 금형을 만들고 이에 석분재질을 부어 모조품을 완성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그 일이 완성된 다음의 감격은 눈물로도 다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었다.

88년은 참으로 기쁜 해였다. 석굴암 모형이 완성되고 신라역사과학관이 세워졌던 것이다. 그해 10월 ‘석굴암 모형전’을 ‘석굴암 무엇이 문제인가, 모형으로 재조

“3년작업 석굴암모형 완성 감격”

상원사 범종·황룡사 9층탑 신비풀이 열중

로 불러내는 일을 해보자는 결심을.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이 석굴암의 모형을 만드는 일이었다. 모형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석굴암을 관찰할 수 있게 함으로 그 신비의 성보를 이해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명한다’는 주제로 가졌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면 힘이 솟는다. 그후 신라역사과학관에 석굴암에 관한 자료와 모형들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이 있었을까? 나의 힘은 아니었다. 전생부터 쌓아온 내 인의 힘이거나 토함산 석굴암의 불보살님들의 힘

이 있었 것이다.

20여년이 넘는 세월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석굴암에 대한 집착을 보였던 것이지만 나는 집착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석굴암을 화두로 수행해 왔고 그 정진은 어느정도 익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첨성대의 과학적 분석을 지나 오대산 상원사 범종 연구로 화두를 바꿔 들었다. 황룡사9층탑의 신비를 밝히고자하는 화두풀이도 조금씩 준비되고 있다.

나는 스님들께 ‘옛날 신라에서 석굴암을 조성하는 불사에 동참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정말이길 바란다. 그래서 금생에서 이런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다음 생에 성불은 아니더라도 스님들을 받는 인연의 씨앗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보는 것이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석굴암의 10분의 1 모형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목조로 만들 생각도 했지만 역시 석질의 질감이야 한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2박3일 정토수련회

1997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행과 포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수련 프로그램과 수련교재를 준비하고 아래와 같이 “2박3일 정토수련회”를 실시하오니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 ▶ 수련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 일요일 오후 2시
 - 제1차 : 97년 1월 3일 ~ 1월 5일 (2박3일)
 - 제2차 : 97년 1월 10일 ~ 1월 12일 (접수마감)
 - 제3차 : 97년 1월 17일 ~ 1월 19일 (2박3일)
 - 제4차 : 97년 1월 24일 ~ 1월 26일 (2박3일)
 - 제5차 : 97년 1월 31일 ~ 2월 2일 (2박3일)
- ▶ 수련내용 : 정토수행법, 염불명상법, 자비관, 관정기도, 만트라명상, 무드라작법, 선체조, 사경의식, 육근참회, 탑쌓기, 연꽃만들기, 향공(香功), 백만편염불, 티벳불교슬라이드
- ▶ 수련지도 : 현장스님
- ▶ 참가대상 : 중고등부 및 어린이법회 지도자, 교사불자, 포교사, 불교신행단체 임원, 정토신앙을 지도하고자 하는 불자
- ▶ 인 원 : 각30명 (선착순)
- ▶ 회 비 : 3만원(교재포함)
- ▶ 교 통 편 : 광주고속터미널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타고 (사평중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 (혹은 군내버스 : 하루 4회 운행)
-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①주소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성별 ⑤직업 ⑥전화 ⑦불교신행경력 ⑧참가하고자 하는 소견과 일시(0차)를 적어 우편 및 팩스·전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연 락 처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전화 : (0694) 52-1755 · 53-1755
팩스 : (0694) 53-0009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 주지 석현장 합장

제4회 재가자를 위한

동계 위빠사나 명상수련원 개설

보덕사에서는 위빠사나 명상수련원을 개설합니다. 뜻 있으신 분은 다만 몇일이라도 동참하여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내>

- 기간 : 97년 1월 15일 - 97년 1월 30일 (15일간)
- 장소 : 대한불교 조계종 보덕사 (강원도 영월군·읍)
- ※ 교통편
 - 서울 - 영월 3시간 소요
 - 기차 청량리 - 영월 3시간 소요
 - 영월터미널 - 보덕사 택시 기본료
- 준비물 : 세면도구, 모포
- 동참금 : 1일 1만원
- 지도법사 : 보덕사 주지 현오스님 (미얀마 72일 저자)
- 주의사항 : 단체 이틀전 신청, 시간 엄수, 오후불식, 묵언
- 문의처 : ☎(0373)374-3169

시간표

4시	예	불
6시	아	침공양
8시	경	행
9시	좌	선
10시	사	시불공
11시 30분	점	심공양
1시	경	행
2시	좌	선
3시	경	행
4시~5시	좌	선
6시	저	녁예불
7시	경	행
8시	좌	선
9시	취	침

대한불교조계종 보덕사